

한일정상회담(08.02.25) 주요 내용

2009.10.22

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후쿠다 야스오(福田康夫)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일 관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.

□ 한일 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접견실에서 후쿠다 야스오(福田康夫)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짐
- 이 날 일본 총리를 비롯하여唐家璇(唐家璇)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,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,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잇따라 접견하는 등 ‘4강(強)외교’ 실시

□ 협의 내용

- 경제분야에 대한 합의
 - 일본측은 양국간 투자활성화와 세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제안, 한국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면서 ‘부품소재기업, 중소기업, 대기업간의 협력도 필요하다’ 고 언급
- 한일 FTA 문제에 대한 협의
 - 양국은 금년 4월 이후에 FTA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합의

- 기후환경변화, 에너지안보 분야,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합의

□ 성과

-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담으로 시종 화기애애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가짐
 - 양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됨으로써 북핵 등 대북정책 전반 조율에 대한 성과
-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아키히토 일왕의 친서가 전달, 일왕의 메시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16대 (취임식에서는) 없었던 일

<참고자료>

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

“李대통령, 日총리에 “의미있는 첫 손님” (연합뉴스 08.02.25), “李대통령, 4월 방일 한일 FTA 협의” (아시아경제 08.02.25)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내용 종합